

‘품 안의 나’... 잊혀져가는 그 날, 그 순간을 마주하다

주안미술관, 2026 기획전 'ART KIKA 8 - 작은 나의 커다란 품'...내달 30일까지

아련한 감정의 편린들이 모여 만든 온기 품은 풍경들 공간·관계 속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위로'와 '안식'

어린이의 감각과 가족의 기억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는 파스한 전시가 마련됐다. '품'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보호와 안식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기획전이 관람객과 만난다.

주안미술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월30일까지 전시실에서 2026 기획전 'ART KIKA 8 - 작은 나의 커다란 품'을 개최한다.

'아트키카'(ART KIKA)는 '아트 키즈카페'(Art Kids Cafe)의 약자로, 2019년부터 이어온 주안미술관의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년 새로운 주제와 지역 작가 협업을 구성된다.

이번 전시는 '작고 연약한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존재'를 주제로 한다. 기억과 공간,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안식'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 각자가 머무를 수 있는 '품'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작가로는 강소이, 오혜린, 황혜정 3명이다.

전시 제목 '작은 나의 커다란 품'은 작고 여린 존재인 '나'와 이를 감싸안는 '커다란 세계'의 관계를 의미한다. 어린이에게는 보호받는 감각과 안정감을, 어른에게는 잊고 지냈던 위로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세대 간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소이 작가의 작업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 출발한다. 비 오는 날 아버지의 가죽자켓에 감싸였던 장면을 중심으로 작업을 전개한다. 흐릿하게 남은 기억의 질감과 감각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며, 구체적인 서사보다는 '느낌'으로 전달되는 장면을 제시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품 안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보호의 감정을 이미지로 환기시키고, 관람객이 자신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특히 '근심이 없던 상태'에 주목해 잊혀진 안식의 감각을 불러낸다.

오혜린 작가는 고양이를 주요 모티프로 삼아 내면의 공간과 심리적 안식을 표현한다. 화면 속



강소이작 '사랑의 크기'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평온하게 머무르는 존재로, 현대인의 상태를 투영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민화적 도상과 밝은 색채, 유쾌한 구성을 통해 작은 공간을 하나의 세계로 확장하고, 머무름 자체가 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름을 타거나 꽃 사이를 유영하는 장면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상상력과 위트를 함께 담아낸다.

황혜정 작가는 집과 가족, 밤의 풍경을 통해 세계를 '품'으로 시각화한다. 그의 작업에서 밤은 어둠이 아닌 온기를 품은 시간으로 표현되며,



오혜린작 '밤마실'

창문 너머의 불빛과 별빛은 보호와 안식의 신호로 작용한다.

거대한 꽃과 그 위에 머무는 작은 존재의 대비는 연약한 존재를 지지하는 세계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공간과 자연, 관계를 유기적



황혜정작 '진달래꽃 필 때'

로 연결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하나의 '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전시는 어린이에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 관람객에게는 서로의 존재가 '품'이 될 수 있음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시 공간은 포토존과 감상 체험 요소로 구성되며, 연계 아트교육 프로그램과 키트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전통·변용의 경계’...한국화, 네 개의 시선

수하갤러리, 오는 10일까지 초대전 '한국화 4인 4색(四人四色): 따로 또 같이'

남도 한국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조형 언어를 펼쳐온 작가들이 한 공간에 모였다. 각자의 방식으로 확장된 한국화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다.

수하갤러리는 오는 10일까지 초대전 '한국화 4인 4색(四人四色): 따로 또 같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변용해 온 네 작가의 작업을 통해 동시대 한국화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작가는 김대원·양홍길·고미아·이태희다. 이들은 '한국화'라는 공동된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재료와 기법, 화면 구성으로 개성을 드러내며 하나의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김대원 작가는 전통 호남 산수화의 틀을 벗어나 수묵담채 실경산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인다.

일상과 여행에서 얻은 기억과 인상을 대담한 윤필과 채색으로 풀어내며 심상적 풍경을 구축해왔다.

양홍길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두터운 마티에르를 바탕으로 한 추상적 화면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낸다. 붉은 색 대비와 현대적 구성은 시각적 긴장과 해방감을 동시에 이끈다.

고미아 작가는 '자아와 치유'의 서사를 중심에 두고 몽환적인 화풍을



김대원작 '울릉도 포구'

펼친다. 내면의 감정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정서적 울림을 전한다.

이태희 작가는 절제된 조형과 여백을 통해 한국적 공간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나무결 질감과 흑백 대비를 활용한 화면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각을 형성한다.

정하경 수하갤러리 대표는 "작가 네 명의 고유한 색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과정에 주목했다"며 "앞으로도 남도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엄마의 손끝서 건져 올린 기억의 온기

강진아트홀, 류미숙작가 초대전 '엄마의 밥상'...오는 14일까지

고분밥 위에 뿌려진 김조각, 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 프라이, 도마 위에 놓인 등푸른 생선까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박한 식재료들이 화면을 채운다.

류미숙 작가의 초대전 '엄마의 밥상'이 오는 14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엄마와 자신의 손, 그리고 음식을 주요 소재로 한 회화 30여 점을 통해 '밥상'이라는 익숙한 풍경을 다시 들여다본다.

작품 속에는 늘 누군가의 손이 등장한다. 밥그릇을 건네거나 과일을 주고받고, 김을 찢거나 달걀을 부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손의 주인은 특정되지 않는다. 엄마일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

이번 전시는 '엄마의 밥상'을 통해 가장 평범한 일상 속 깊은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김이 피어오르는 밥 한 그릇을 매개로, 자식을 향



'사랑'

한 어머니의 헌신과 그리움을 화폭에 담아내며 바쁜 일상 속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와 유년의 기억을 환기한다.

작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음식의 소중함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작업했다"며 "관람객들이 각자의 시간을 떠올리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맛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